조선

주체111
(2022)
5
(790)

주체45(1956)년 4월
화보《조선》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오늘의 조선

표　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평양시군중시위중에서

뒤표지: 태양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승 룡

6

22

60

68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동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은 무한한 긍지와 환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 성원들, 근로단체,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와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와 녀사께서는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동서고금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 기적의 력사를 창조하시여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특별소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912년의 4월 15일이 있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고 인민이 누리는 존엄과 영광,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세대는 바뀌여도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더더욱 절절하게 새겨지고있다고 하면서 한평생 인민과 운명을 같이하시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시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의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줄기차게 나아갈 때 우리 국가는 그 어떤 고난과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인민의 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것이 **김일성**조선 110년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빛나는 조국》의 숭엄한 선률이 울리는 속에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경축광장에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이 들어섰다.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광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혁명앞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자력자강을 혁명승리의 보검, 부강번영의 전략으로 틀어쥐시고 주체혁명의 전 로정을 자력갱생승리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에 새기며 시위군중이 터치는 함성과 구호가 광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과 국가를 충성의 일편단심과 혁명적기개로 받들어가는 미더운 인민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격려해주시였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헤쳐오는 투쟁의 나날에 창조된 자력의 고귀한 전통을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틀어쥐고 강국의 꿈과 리상을 보란듯이 실현해나갈 참가자들의 기세로 하여 시위분위기는 고조되였다.

화보
【특별소식】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와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1912
태양절
태양절
경 축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절대위력인 일심단결의 기상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참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끝까지 참되려는 강렬한 지향이 시위대렬마다에 세차게 맥동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기치높이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겨가는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사회주의강국》,《일심단결》, 《자력갱생》이라는 글발이 씌여진 대형붉은기폭을 추켜든 대오가 우렁찬 구호를 합창하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축광장에 또다시 터져오른 환호성은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승리의 천만리, 영광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조선인민의 신념의 메아리로 4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1912
태양절
2022
백두의혁명정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억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축발전구상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에 따라 불과 1년사이에 일떠선 송화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며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받들어올린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태동하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이다.

송화거리 준공식이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성원들, 수도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 군민건설자들, 평양시민들, 새 거리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과 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덕훈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건설력사에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송화지구의 선경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화거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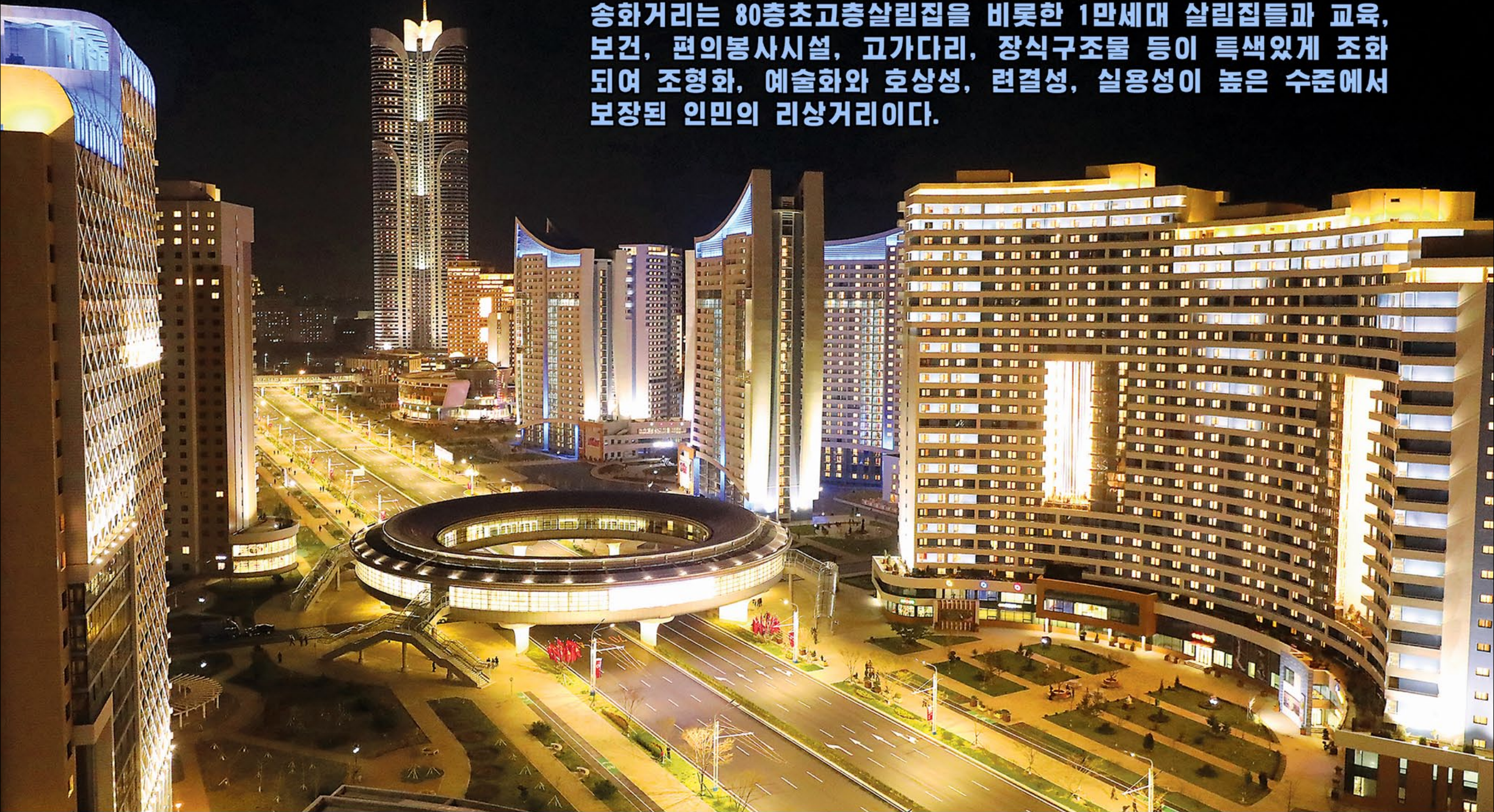
순간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가꾸시며 하늘같은 은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합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새 거리, 새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봄날의 해빛처럼 따사롭게 비쳐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는 수도시민들의 격정의 대하가 준공식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기를 축원하시며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

불과 1년사이에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며 일떠선 송화거리는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1만세대 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 등이 특색있게 조화되여 조형화, 예술화와 호상성, 련결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인민의 리상거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부흥의 설계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는 다락식 주택구가 일떠섰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4월 13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과 수도의 당 및 정권기관, 시공단위 일군들, 건설자들, 경루동에 입사하게 될 공로자들과 가족들, 평양시민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4월의 봄하늘을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수도건설 구상과 이민위천의 리념에 떠받들려 보통강 기슭의 성스러운 터전에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호화주택구가 일떠섰다.

조용원동지는 위대한 수령의 체취와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성스러운 터전우에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된 세상에 으뜸가는 사회주의번화가가 솟아오른 크나큰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근면한 노력으로 당과 국가를 받들어가는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제일먼저 누리게 하려는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루동의 주인들이 오늘의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고 나라의 보배, 집단의 선구자로서의 값높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루동이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의 동리로 길이 찬양받기를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순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는 준공식장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꽃펴난 보통강반의 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속에 서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리춘히, 최성원 책임방송원들과 로동신문사의 동태관 론설위원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과 체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구를 준공하고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이 수령님의 뜻대로만 사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수령님의 념원대로 한것뿐이라고,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 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거듭 축복해주시면서 앞으로 시간을 내여 꼭 다시 오겠다는 은정넘친 약속을 하시였다.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개발되여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목표달성에서 련이어 쟁취하고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망적인 국방력강화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무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변혁의 년대기,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온 승리와 영광의 10년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 경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4월 10일 수도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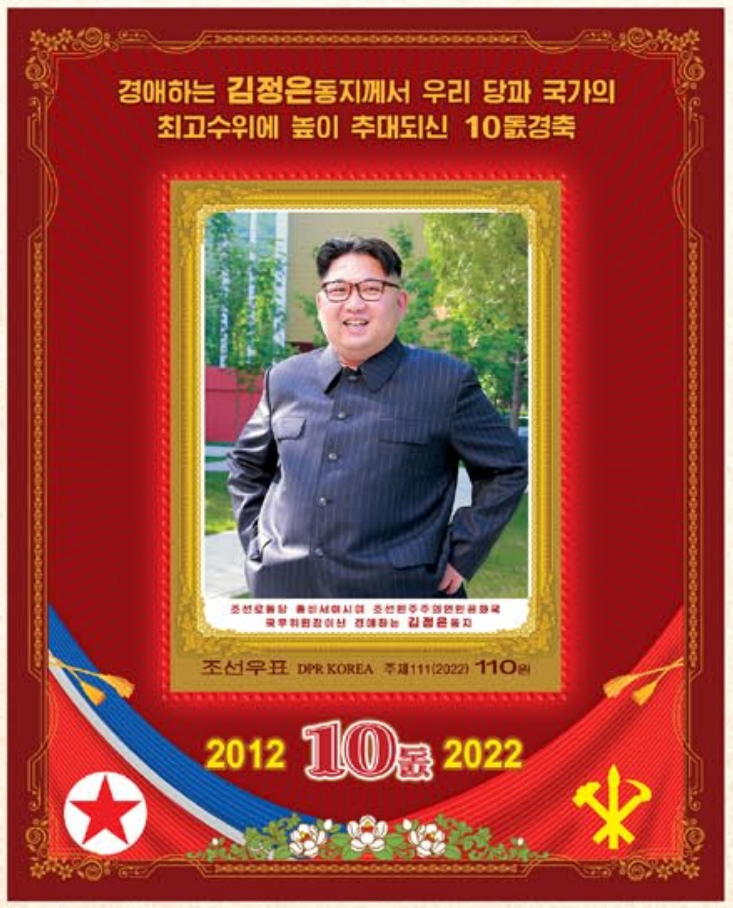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의 크나큰 영예이고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완벽한 실천강령들을 천명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미증유의 국난속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당건설과 당활동의 불변의 지침을 마련하시고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인민의 당으로,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조선우표 DPR KOREA 주체111(2022) 110원

2012 10돐 2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우표 발행

보고자는 지난 10년간은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막강한 저력과 불굴의 진군기상이 힘있게 확증된 나날이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이 비할바없이 공고화되고 최강의 국력을 마련하는 력사적 대업들이 완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최룡해동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따라 공산주의미래를 향해 용기백배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성스러운 10년을 긍지높이 되새기면서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후손만대 복락할 인민의 리상사회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려정에 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종합해설을 듣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꾸려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시기관》의 여러 호실을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에 즈음하여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꾸려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시기관》을 참관하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시기관》에는 비범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민족만대의 존엄과 안녕을 담보하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성취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기에 빛날 업적을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과 혁명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위대한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새 시대의 장엄한 투쟁에서 조국과 혁명이 부여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책무를 다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가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10년》이 평양과 각 도들에서 진행되였다.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경축하여 새 우표를 발행하였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경축하여 수도의 곳곳에 환희로운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글 김선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화보【오늘의 조선】
4.15.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
일심
단결
백두의혁명정신
새로운승리를향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진행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뜨겁게 분출시키는 송가들과 로동당찬가들, 시대의 진군가들이 올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경축의 춤바다, 환희의 축포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4월의 봄명절에 울려퍼지는 인민의 축원의 노래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성황리에 진행

태양조선의 승리와 영광에 찬 력사에 110번째 년륜을 아로새기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민족의자애로운어버이를영원히높이모시고따르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선률과 춤률동이 되여 펼쳐진 축전은 화창한 봄명절의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수도 평양의 극장, 회관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혁명적대경사로,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경축하는 수도시민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각 도의 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예술소조원들은 공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만고불멸할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하며 태양의 력사를 무궁토록 빛내여갈 천만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높은 사상예술적형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공연들에서는 위대한 당중앙의 백승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수령흠모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를 더 높이 울리며 태양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인민의 일편단심이 힘있게 구가되였다.

국립교예단 요술극장에서 진행된 도예술단 요술배우들과 요술애호가들의 공연도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참신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축전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사진 리명국, 황정혁, 리철진, 김영호
글 강수정

화보【오늘의 조선】
태양절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경축
1912
2022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공연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각 지역과 단위들에서 선발된 수많은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태양절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세기를 이어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찬가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진행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부, 각계인사들과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칭송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 새 생활창조를 반영한 특색있고 다채로운 공연종목들과 함께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진정이 어린 축하발언들을 록화하여 국제통신으로 보내여왔다.

1982 2022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는 속에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였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되는 속에 평양에서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가 련일 펼쳐져 태양절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4월 10일에 개막된 이번 축전에는 중국, 로씨야, 꾸바, 웰남, 라오스, 몽골, 벨라루씨, 몰도바,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수십개 나라의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과 해외동포예술단,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한없이 고매한 풍모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여러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장
호화평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는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조선인민에게 성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세심히 가꾸어주신 쌍방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최근년간 습근평총서기동지와 **김정은**총비서동지께서 공동으로 령도하시고 추동하시는 속에 중조관계는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아울러 영원불멸할 중조친선과 나라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로씨야련방 문화상
오. 베. 류비모바

전통적으로 로씨야예술단체들은 이 축전에 참가하고있으며 이는 의심할바없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호상관계발전을 강화하고 문화분야에서 쌍방의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있습니다.

이번 축전이 조선과 로씨야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바공화국 문화성 부상
페르난도 레온 하끄미노

꾸바와 조선사이의 형제적뉴대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의 각별한 친분관계에 의하여 맺어졌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주석의 깊은 관심속에 굳건히 계승되고있습니다.

꾸바는 앞으로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담고있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충실할것입니다.

윁남사회주의공화국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 따 꽝 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호지명주석에 의하여 맺어지고 가꾸어진 조선과 윁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2019년 윁남에 대한 력사적방문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을 더욱 두터이 하여주었습니다.

따쥐끼스딴공화국 문화성 부상
샤리프조다 마누체흐르 무르따조

이번에 진행되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따쥐끼스딴에서 유명한 빠디다무용단이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 무용단의 이번 축전참가는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를 강화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 새 생활창조를 반영한 세계의 이름있는 예술단,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록화편집물들이 축전에 출품되였다.

축전에 참가한 모든 예술단체, 예술인들은 성의껏 준비한 작품들로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공연들에서 높이 울려퍼진 태양칭송, 위인흠모의 노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과 변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조선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여러 나라 교예배우들의 종합교예공연도 태양절경축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공연록화편집물들은 20일까지 조선중앙TV로 방영되였으며 《조선예술》을 비롯한 인터네트홈페지들에 게재되였다.

글 강수정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출품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록화편집물들은 다양한 예술성과 짙은 민족적색채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웰남교예련맹교예단
단장

저는 웰남교예련맹의 예술인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주석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와 심사성원들, 축전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입니다.

까자흐스딴
누르쑬딴수도교예단 총사장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맞으며 조선인민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봄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협조가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예술교류를 발전시키고 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 발행

기념주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금화)

기념주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은화)

우표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4월의 봄명절의 환희를 더해준 경축행사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온 나라가 태양절경축열기로 끓어번지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련일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중앙연구토론회, 중앙사진전람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해설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탁월한 인민적수령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되새겨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옥류전시관과 조선우표전시장에서 진행된 국가미술전람회와 국가도서전람회, 우표전시회는 걸출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자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재보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참관자들에게 깊이 새겨주었다.

산업미술전시장에서는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태양절경축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해님》이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제25차 태양절료리축전이 있었다.

사진 리평렬, 안철룡, 방은심, 리철진
글 강수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 진행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진행

태양절경축 전국미술축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국가미술전람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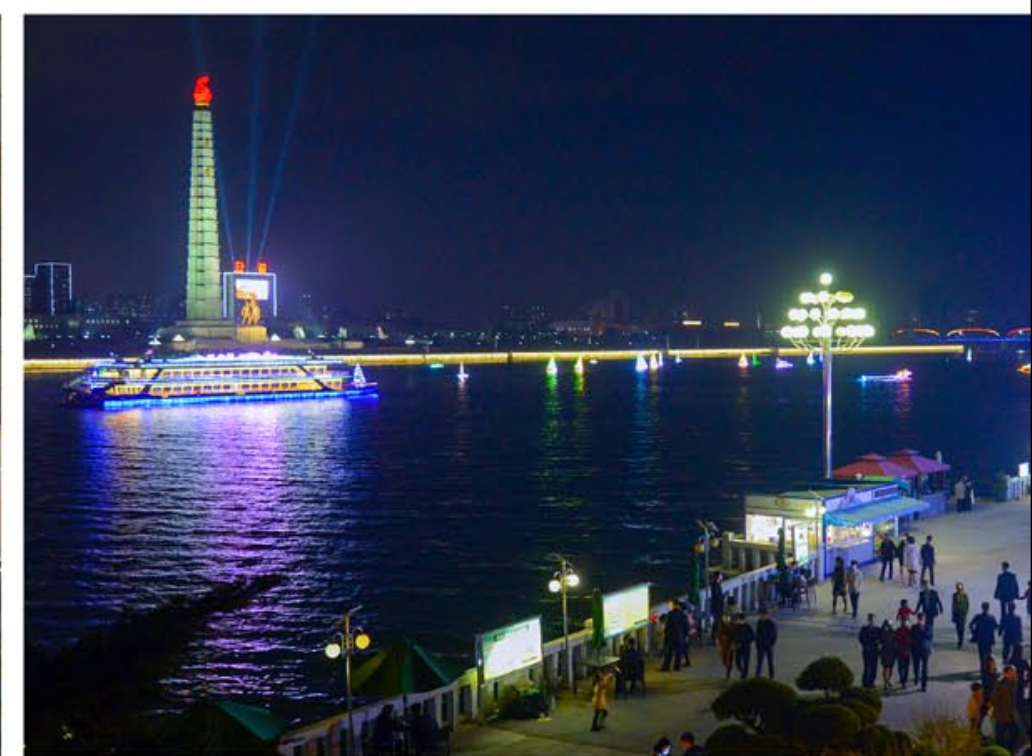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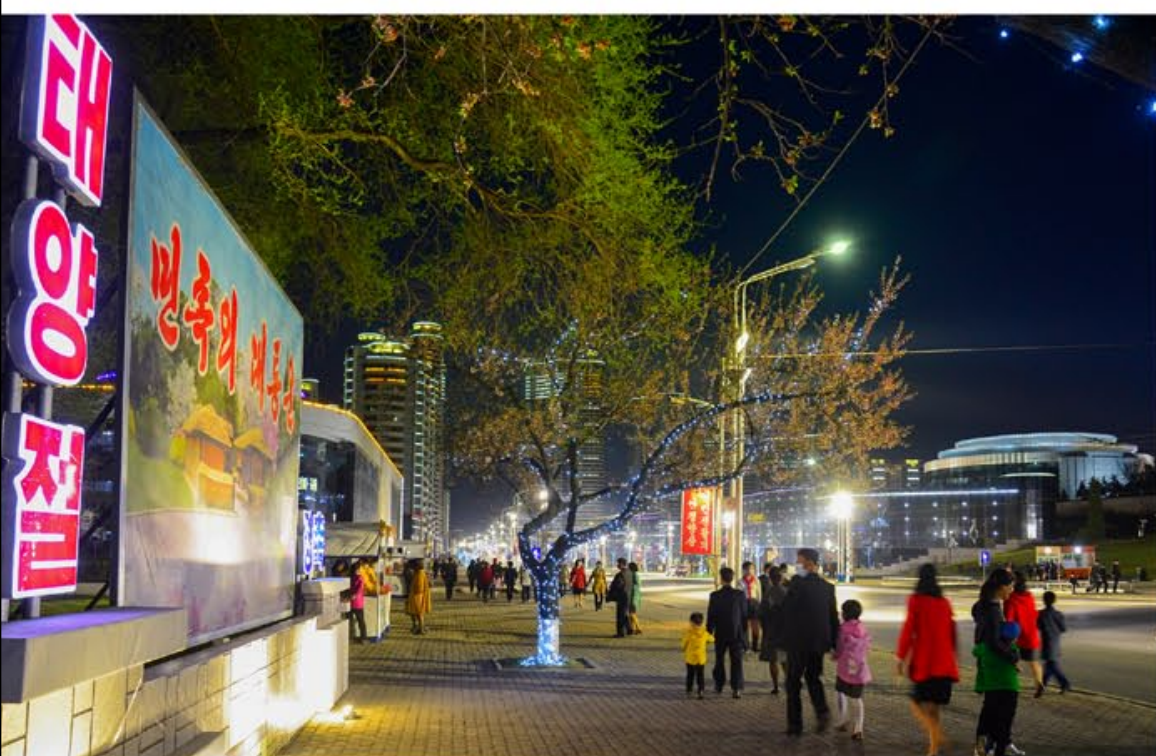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우표전시회 진행

제25차 태양절료리축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태양절경축 만경대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 진행

4월의 명절을 맞이한 수도의 밤

13606-228078

낸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